

과탄산나트륨 수출 "쾌청"

유럽 등 과불산나트륨 규제확산 따라 ... 동양화학 2배 증설

산소계 표백제 원료인 과탄산나트륨의 국내 수요신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반면 수출은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과탄산나트륨 수요현황(단위 : M/T)			
구 분	1992	1993	1994
내 수	12,600	13,500	14,000
수 출	550	1,110	1,330
합 계	13,150	14,610	15,330

관련업계에 따르면, 80년대말까지만 해도 매년 30%정도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산소계 표백제 시장이 90년대초부터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살균제 및 표백 겸용세제의 다수출시로 인해 뚜렷한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과탄산나트륨 수요는 92년 1만2600톤, 93년 1만3500톤, 94년 1만4000톤으로 각각 7.1%, 3.7% 신장하는데 그쳐 시장이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시장여건을 고려해 과탄산나트륨을 독점 생산하고 있는 동양화학은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관련 유럽지역의 경우 과탄산나트륨을 쓰고 있는 국내 및 일본과 달리 대부분 과불산나트륨을 채택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이 성분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되면서 몰타 및 키프러스에서는 이미 사용규제 법령을 제정하는 등 점차 규제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은 여러 환경단체에서 과불산나트륨의 사용규제 운동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도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권장사항으로 각 기업에 시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과불산나트륨을 대체할 물질로 과탄산나트륨을 지목, 점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양화학은 최근 과탄산나트륨의 생산규모를 2만톤에서 4만4000톤으로 2배정도 대폭 늘림으로써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의 채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Degussa 및 Inter-ox 등 세계적인 과불산나트륨 생산기업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더운물에 세탁하는 미국·유럽의 관습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탄산나트륨 수출은 92년 550톤, 93년 1110톤, 94년 1330톤으로 각각 142%, 20% 고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양화학은 95년 수출목표를 3000~3500톤으로 대폭 늘려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94년 기준 기업별 과탄산나트륨 수요는 독주하고 있는 옥시가 1만3500톤으로 96%를 소비했으며, 그외 무궁화유지 및 백광화학이 300톤, 피존이 200톤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피존은 중국산을 수입하고 있으며 백광화학은 일부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동양화학은 최근 과탄산나트륨의 신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의료용 외에 주거용 세정제 및 산소발생제 등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동양화학은 LG화학·제일제당에 식기세척제용으로 공급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저널 1995/15>